

37장 히스기야의 기도

랍사게의 도전은 유다 사람과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다. 그들은 현실을 앞에 놓고 랍사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히스기야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올라갔을 뿐 아니라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였다. 이사야는 앗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그는 앗수르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 히스기야의 반응과 이사야의 예언 (37:1-7)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서 엘리아김과 셉나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나아갔다(참조 사 22:15-22). 히스기야는 엘리아김 등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그날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이라고 하면서 랍사게의 말이 여호와를 훼방한 것임을 알리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구하였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편지에서 핵심이 자기의 왕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훼방한 것’ 이라 이해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예언자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앗수르 왕의 종들이 여호와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속에 신을 두셔서 그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데 거기에서 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2.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 (37:8-13)

앗수르 왕이 뿔나를 공격할 때에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와 합류하였다. 그 때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한 때에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이제껏 아무도 앗수르 왕의 손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으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다.

3. 히스기야의 기도 (37:14-20)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퍼 놓고 간구하였다. 산헤립이 천지를 지으신 분,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을 훼방한 사실을 아뢰었다. 앗수르 왕이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때마다 모두 정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멸망시킨 다른 나라의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여 천하만국으로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다. 전에는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께 기도해 달라고 하였는데(37:4)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고 부르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였다(37:19).

4. 이사야를 통한 응답 (37:21-35)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대답해 주셨는데, 먼저는 앗수르를 책망하시고(37:21-29), 이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신 후에(37:30-32), 다시 앗수르를 책망하셨다(37:33-35).

첫째, 여호와께서는 앗수르를 2인칭으로 부르면서 논죄하셨다. 그들이 시온을 멸시킨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에 맞서 대항하고 그 이름을 훼방한 것이라고 하셨다. 앗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일들을 이룬 것일 뿐이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절시키실 차례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의 훼방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 받아들이시고,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37:29) 하고 말씀하셨다. 27:1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고 하셨는데, 교만한 세상 제국을 리워야단이라고 하시면서 전하신 그 말씀을 앗수르에 적용하여서, 그들의 코를 갈고리로 꿰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욥 41:1, 34).

둘째,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을 선언하신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땅에서 농사의 일들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한 자들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셋째, 앗수르 왕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할 것이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 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5. 패배 (37:36-38)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대로 여호와와 사자를 시켜서 185,000명을 하룻밤에 몰살하셨다. 앗수르가 그렇게 패배하고 퇴각하였다는 것은 당대에 큰 소식이었다. 히스기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물도 받고 존귀하게 되었다(대하 32:23).

산헤립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인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산헤립은 우상을 섬겼으나 그 우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 신전에서 죽었으나, 여호와와의 전에서 기도한 히스기야는 응답하심을 받았다(37:1, 14).

37장 익힘 문제

1. 1) 랍사게가 하나님을 능욕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1절)
- 2)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까? (2절)
2.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랍사게가 하나님을 훼방한 것을 알리고,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하였습니까? (4절)
3.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산헤립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7절)
4. 지금까지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한 신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는 랍사게의 글을 들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4절)
5.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였는데, 랍사게의 편지를 받은 후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까? (20절)
6.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앗수르가 훼방하고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1-35절)
7. 여호와께서는 앗수르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6절)
8. 여호와께서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도록 그 성을 보호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35절)
9.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와 사자가 앗수르의 군대를 치자 하룻밤새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절)
10. 1) 앗수르 왕 산헤립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누구에 의하여 죽었습니까? (38절)
- 2) 그의 뒤를 이은 왕은 누구입니까? (38절)
- 3) 이것은 여호와와의 전에서 기도하여 그와 그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누구와 대비가 됩니까?